

칼럼

황만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 한방소아과 전문가



그것이 알고싶다 '안아키'편 단상

지난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된 '안아키 사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안아키' 편에 자문 인터뷰로 출연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사태는 지난 4월경 매우 심각한 수준의 피부 병변을 가진 아이들 얼굴 사진이 SNS 상에 퍼지면서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안아키' 사태는 매우 복잡한 의학적 이슈들이 실태조사로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정밀한 전문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 거시적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안아키' 사태의 상황적 배경이자 근원적인 사회적 원인이 다른 아닌 '약물(특히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공포'라는 점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의 항생제 사용량은 1000명당 31.7명으로 12개국 평균치(23.7명)보다 35%나 많았다.

또한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팀은 한국의 영유아 항생제 처방 건수가 1인당 3.41건으로 가장 적은 노르웨이(0.45)의 7.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듣지 않는 다제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말미암아 슈퍼박테리아 출현 및 면역력 저하 그리고 성장 부진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번 '안아키'와 같은 '과도하고 극단적인 자연주의' 세력의 발흥인 것이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항생제 오남용 상황'이 극단적인 안아키류의 맹목적 자연주의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안아키' 카페의 핵심 운영자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원한의사(물론 지난 5월 대한한 의사회회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라는 점 때문에, '현대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낭설 역시 가짜 뉴스의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의 한의학 교과서나 한의학 논문 그리고 한의학 문헌들 그 어디에서도 '안아키'와 같은 '과도하고 극단적인 자연주의'를 뒷받침하거나 옹호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의학적 표준과 통계적 근거 및 보건학적 상식과 보편적 전문성에 입각한 '합리적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현대 한의사들이 꽤 오래전부터 '안아키'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내부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크게 불거지게 돼 많은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대 한의학이 지향하는 '합리적 자연주의'는 보편성과 객관성, 그리고 과학성과 건전한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합리적 자연주의는 '안아키' 류의 기기묘묘함이나 신비주의 및 위험하거나 과도한 불연 감수를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정한 질병 자체만을 바라보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허락하고 있는 어린이의 근본적인 체질적 취약함이나 면역학적 불균형에 보다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에 임한다는 것이 현대 한의학과 합리적 자연주의가 가지고 있는 소아과 치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병(未病) 상태, 즉 아직까지 질병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질병 단계로 이행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 개입해, 질병으로 이행될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한약 처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현대 한의학과 합리적 자연주의가 갖는 소아 치료에 있어서의 커다란 장점이다.

항후 '안아키'와 같은 어이없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 건강 교육에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 한의학의 발전된 과학적 면모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아직도 민간요법 수준으로 폄해되거나 오해되고 있는 현대 한의학의 세계적인 과학적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社說

낚시어선 제도개선 필요

정부가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정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지켜볼 일이다.

김영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어선업 등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낚시어선업 제도 도입 시 기존처럼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불가하고,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 감소 등이 따르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또 "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해 항로설정, 최대속력 제한, 항로표지 설치 등 맞춤형 통합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矯 바로잡을 교 矯手頓足 손 수 손과 발을 두드리며 춤을 춤. 손 조아릴 둔 발 족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소화기 수명 알고 사용하자

우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소화기이다.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화기의 수명을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동안 분말 소화기는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에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 검사 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소화기도 사용연수에 따라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은 해 9월 여주시 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돼 중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국가산단의 대규모 공장 등 소화기 설치개수가 많은 대상부터 일반 가정주택까지 소화기 내용연수제도 및 성능확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게 소화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대상은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가정이나 일반 시민은 반

사회보와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소화기 안전관리 및 폐기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후 소화기 폐기 등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는 가정 및 사무실에서 쉽게 사용하는 기초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며,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 시행으로 노후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제조 10년 미만이라도 결면에 녹이 보이는 등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영남 /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력어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Health check-up icons: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구강검진, 알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미처 검진 안하셨어요.

